

* 믿음에서 증거의 역할

14년 전 제가 사제 서품 받았을 때, 저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때 조금 공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려운 진실을 듣는 것에 대해 거부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르침의 이유를 제시하는 데 다소 적대적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토마스 성인과 증거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오늘의 복음말씀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증거가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접근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 1) 우리들 중 일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그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좋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때,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이런식으로 신앙에 접근합니다.
- 2) 우리 중 다른 사람들은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완전히 받아들일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의 가르침이 문화적 규범과 모순될 때;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서 어려운 점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일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 3) 우리중 다른 남은 사람들은 충분한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믿음이 갖지 않습니다.

복음은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하고 말하였다”(요한20:24-25).라고 말합니다.

-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지식, 즉 증거 지식과 신앙 지식 사이의 신학적 차이를 봅니다. 토마스 성인은 증거적 지식인, 다른 제자들이 봤다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싶어합니다. 만약 그가 그들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지식, 즉 타인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지식일
것입니다(Avery Dulles, in *Systematic Theology* by Francis Schüssler Fiorenza & John P. Galvin, 108-110).

- 비슷한 예는 수학 선생님들이 그들의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 답이 정확한 지 설명할 수도
있고(증거 지식), 아니면 그냥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믿음 지식).

각각의 지식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 증거 지식은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아는 면에서 더
낫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증거적인 지식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믿음의 지식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친구, 선생님, 전문가, 언론,
정치인(정치인은 아마 아닐겁니다)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 중 누구도
세계가 둥글다는 것에 직접적인 증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해준 사람들을 그저
믿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믿음이 아닌, 우리가 믿는 사람에 대한 믿음의
지식입니다.
 -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을 만 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을 뿐이고, 그
반대되는 어떠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중
몇몇은 부활에 대해 조금 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예수님의 약속과 그 이후, 역사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슨한 논쟁이지만,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다만 빈 무덤, 예수님의 모습, 기독교의 폭발적 부상을 가장
그럴듯 한 설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적하는 세 가지 역사적 사실에
마음을 동여맨다면 우리의 지식 방식은 가장 강렬할 것입니다. 이것은
증거 지식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역사적 증거입니다.
- 믿음의 지식은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릴적부터 ‘부탁합니다’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고, 돕겠다고 제안하고, 똑바로 서있고, 투정부리지 않고, 왜 그런지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리한 곳에 있습니다. 어릴 때 포르노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더라도 성적 자제력이 더 좋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타인의 몸을 객관화 하지 않고 성을 주로 쾌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체로 유리합니다.

토마스 성인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적인 지식을 원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마음이 알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께 이해와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불합리하고 순진한 것일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왜 특정한 것을 가르치는지 우리 자신을 위해 직접 봐야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해 말해 주는 사람들의 신빙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성인의 증거 지식에 대한 요청은 좋은 것입니다.

-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성서학자인 레이먼드 브라운은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깊은 의미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기적의 피상적인 면에만 호기심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n the Anchor Bible, 1045-46*); 그들은 단순한 회의주의자가 아니라 냉소주의자들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좋은 질문을 제기하는 반면, 냉소주의자들은 불신하기 때문에 논쟁을 벌입니다.
- 똑똑하지만 미숙한 십대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부모에게 동의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한번은 천주교 신앙을 떠나려는 한 젊은이가 “만약 하느님께서 계신다면, 우주가 137억년이 됐는데, 왜 우리를 만드시는 데 그렇게 오래 기다렸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왜 안되지? 왜 그분께서 우리를 당장 만들어야하지?”라고 되 묻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인간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질문이고, 신이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식으로든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보통 성실한 어른이 하는 더 좋은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계시고 사랑이 있으시다면, 하느님께서 왜 당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십니까?”입니다. 그것은 현명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마스 성인처럼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응하시는 방법이 놀라운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토마스 성인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토마스가 찾고있는 증거를 제가 해왔던, 적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제시하시며 믿으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인내심이 크십니다 (St. Cyril of Jerusalem, *John 11-21*, in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373-4):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6-29).

- 우리는 여기서 세가지 통찰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토마스 성인은 예수님을 보고 만져도 되는 지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하도록 허락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상처를 실제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은 그에게 충분한 증거였습니다(Fr. Raymond Brown,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360).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그가 그의 탐구에 성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단지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증거를 피했습니다. 2) 그는 믿음에 대한 지식에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는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대단하게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토마스 성인은 그분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도입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1047). 3)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가 증거로 예수님을 알게되든 그렇지 않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1048): 만약 우리가 첫부분에서 말하는 증거가 필요하고
봐야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와 열명의 사도들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믿었기
때문입니다(1049-51).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보내신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하느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는 것 일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교구의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여기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1) 인생의 목표는 진실에 도달하는 것인데, 어떤 종류의 지식이 더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가톨릭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증거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가톨릭 청년들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특히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의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 2) 가족 중 신앙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오, 엄마, 말이
안되더라도, 성경에 나와있는 건 뭐든지 믿으세요.” 어쩌면 여러분 어머니가
그 이유는 모르실 지라도, 중요한 것은 만약 그녀가 진실되게 산다면, 여러분
어머니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됩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그의 형에게, “ 형은
믿음이 없어. 하느님을 그냥 믿어.” 그러나 아마 그들은 진실을 이해하기 전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 3) 더 인내심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스
성인에게 매우 인내심을 가지셨습니다. 인생의 특정한 부분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배울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믿음과 이성이 필요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이것이 인간의
영혼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 ‘두 개의 날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Fides et Ratio*, 1).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두 가지 모두를 쓰기를 원하십니다.